

장흥군,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월 준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생활여건 개선 위해 40억 투입 용산어울림마당 신축 공사 통해 문화생활 및 스포츠 활동

장흥군은 '용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에 2018년도 선정돼 40억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읍·면 소재지를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서비스 공급 거점지로 활용돼 다양한 기초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용산면 내 분산된 프로그램 공간을 통합하기 위해 용산어울림마당을 신축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목욕탕 2층을 리모델링하여 실내 체육시설을 확보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생활 및 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함께 추진하는 지역여량강화사업을 통해 용산면 부녀회를 대상으로 음식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했다. 용산면의 자원을 활용한 향토음식, 퓨전음식, 제과제빵, 다과 등을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여량강화를 실시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각 읍·면



용산어울림마당 신축 공사. 당 최소 40억원에서 60억원이 투자되는 장동, 유치, 부산, 장평 기초생활거점 사업 또한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실 있고 체계

적인 추진을 통해 북부권역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 기자

강진군, '군민과의 대화' 성료

강진군은 2023년 3월 20일 오후 2시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3 강진원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기존 의견 중심의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군정 보고를 PPT로 진행하고 주민 숙원 사업의 사전 접수와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해 주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등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군정에 녹여 넣기 위한 민선 8기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영상 촬영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11개 읍면에서 총 78건의 읍면 주민숙원사업을 사전에 접수해 사전 편집을 거쳐 제작되었다. 이를 통해,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가감없이 전달하고, 해결 방안 또한 상세히 논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올해 군민과의 대화는 기존 읍면 순회 방식에서 전체 대화 방식으로 진행해, 각 읍면 상황 및 시급한 건의 사항을 전 군민이 공유하고,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전 군민이 화합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강진=김영일 기자



강진 신전면, 2023 경로당 보조금 회계 교육 실시

올바른 보조금 사용 방법 안내

강진군 신전면은 지난 21일, 관내 20개소 경로당의 회장과 총무를 대상으로 경로당 보조금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남희 신전면 주민복지팀장이 경로당 보조금 지원내용 및 정산 시 필요한 항목별 집행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자살 예방을 위해 군 보건소 최지혜 정신보건간호사의 생명지킴이 관련 교육도 이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양희남 신전면분회 총무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내실 있게 경로당을 운영 해어르신들이 활력 넘치는 여가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철 신전면장은 "이번 경로당 보조금 회계 교육을 통해, 모든 어르신들이 즐겨 이용하는 경로당을 더 투명하고 원활하게 운영해 달라"며 "아직도 마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예방 수칙을 잘 지켜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완도 발전을 이끈 '당신'을 찾습니다

'군민의 상 및 명예 군민' 후보자 4월 14일까지 접수

완도군이 '제52회 완도 군민의 날'을 맞아 군민의 상 및 명예 군민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군은 매년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 등에 공적이 있거나 군 명예를 선양한 단체 또는 개인을 추천받아 심사를 통해 군민

의 상 수상 및 명예 군민을 선정하고 있다. 군민의 상은 교육 및 문화 체육, 사회복지 및 환경, 산업경제, 향토방위 및 질서, 안보 부문 등 총 4개 부문에서 부문별로 1인을 선정한다. 명예 군민은 문화, 예술, 교육, 체육, 경제,

과학 등 대내외적으로 군정 발전 및 군 위상 제고에 기여하거나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군민 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등으로 선정 인원은 제한이 없다. 오는 4월 14일까지 완도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읍·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은 세대주 30인 이상의 연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군에서는 심사위원회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자를 대상으로 심사한 후 오는 5월 19일까지 대상자를 확정, 5월 31일 '제52

회 완도군민의 날' 기념행사 시 상과 증서를 수여한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명예 군민 활성화를 위해 역대 명예 군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방안 중 하나로 명예 군민 팸 투어를 통해 해양치유와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등을 홍보하고, 명예 군민증 제작 및 완도군 시설물에 대한 입장료 할인 등을 통해 명예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무료 화분 분갈이 행사' 진행

진도분재회 회원 재능기부, 280개 화분 분갈이 실시



진도군이 반려 식물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도분재회와 함께 무료 화분 분갈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반려식물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주말 동안 진도군 의신면 사

천리 물놀이장 일원에서 마련됐다. 진도분재회 회원 20여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군민들에게 무료로 분재 280개 분갈이를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또 군민들에게 관상 산림식물인 분재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취미 생활인 분재를 소득 산업화로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 진도군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가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분은 적정 시기에 분갈이를 하지 않아 식물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강한 반려식물 가꾸기를 통해 생활 속 정원문화를 행복하게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 선정

지역문학관 특성화 지원 공모도 선정, 지역문화향유 거점 자리매김

해남군 땅끝순례문학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사한국문학관협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과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연달아 선정되었다.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지역 문학관에 상주작가를 배치해 지역민의 문화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땅끝순례문학관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연속 문학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올해 2,478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원화 상주작가와 함께 문학관 소장유물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원고를 작성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기동취재본부

문학관의 문화예술진흥 거점 육성과 문학 콘텐츠 가치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역 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4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총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백련재 문학의 집과 연계, 해남으로 글을 쓰러 온 입주작가들의 삶과 작품세계, 입주동기 등을 음악을 곁들인 토크콘서트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도 다양한 국비 사업에 선정되어 군민들의 문학 향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군민들과 문학으로 소통하고 결실 맺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